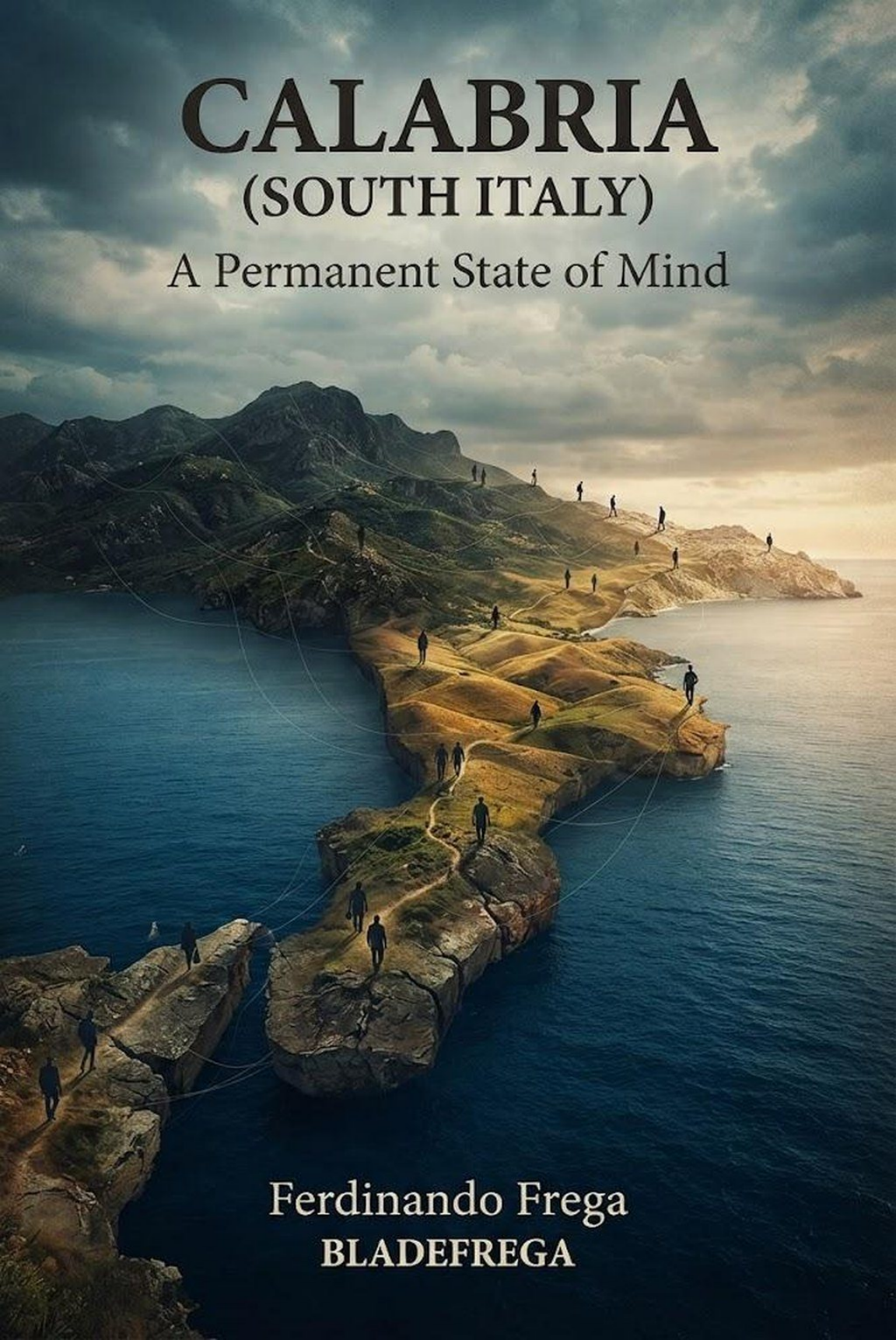

CALABRIA
(SOUTH ITALY)
A Permanent State of Mind
Ferdinando Frega
BLADEFREGA

칼라브리아(남부 이탈리아)

THE FAMILY · 09

웹에 떠도는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땅은 수백만 년 전, 이탈리아가 아직 그 유명한 장화 모양을 갖추기 전에, 지금의 사르데냐와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뒤에 아프리카를 향한 지각의 끌림이, 지진이, 이주가, 사람들이, 야망이, 신앙이, 그리고 필요한 모든 영성이 찾아왔다. 마침내 분리가 일어났고, 칼라브리아는 장화 모양 반도에 붙은 이탈리아의 끝자락이 되었다. 덧붙이자면 끝이 뾰족한 장화다. 누군가의 엉덩이를 걷어차 줘야 할 때 쓰는 그런 신발 말이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여성적인 우아함이라 부르겠다고 고집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의 깊게 살펴보자. 빠져 있는 것은 칼라브리아의 역사가 아니라, 칼라브리아 사람들과 그 기원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나의 구조적 분석은 오로지 경험에만 근거한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에 대해 나는 아무런 학위도, 제도적 권위도, 과학적 인증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교수도 연구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관찰한 대로의 사실과 내가 얻은 대로의 지식을 전할 뿐이다.

검증도 평가도 필요 없는 두 가지.

그리고 오직 진실만.

아하하하하.

처음에 칼라브리아를 이루던 세 개의 주, 북쪽의 코센차, 가운데의 카탄차로, 남쪽의 레조칼라브리아는 곧바로 성격과 문화와 사회적 행동에서 깊은 차이를 드러냈다.

북쪽, 코센차 주변에는 마을과 산의 사람들이 산다. 신념과 지역에 대한 충성을 하나의 면도날로 만든 사람들. 보여 주고, 설득하고, 중요해 보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키운 주민들.

지난 70년 동안 칼라브리아의 정치를 빚어낸 많은 남자들이 나온 곳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칼라브리아 구석구석에서 표를 모았다. 팔 것이 거의 없을 때조차 자신을 팔 줄 알았다.

나처럼 조금은.

아하하하하.

가운데에는 카탄차로가 있다. 언덕과 교역과 이동의 사람들.

전설에 따르면 원래 CATA와 ZARO라는 두 정착지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두 족장의 자식들이 결혼했고, 하나의 도시가 태어났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교역은 그들의 천연자원이 되었다.

기업가 정신은 본능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DNA에는 기회를 알아보고, 상황을 협상하고, 형편을 경제적 가치로 바꾸는 능력이 남아 있다.

기회와 기회주의는 사촌이다. 둘 다 같은 경제 가문에 속한다.

이들이 칼라브리아의 진짜 기업가들이다.

그리고 남쪽이 온다.

레조칼라브리아.

바다의 사람들.

수 세기 동안 온갖 문명이 그곳에 상륙했다. 페니키아인, 이탈리아인, 시칠리아인, 상인, 군대, 몽상가, 모험가, 정복자, 그리고 장사꾼.

많은 이들이 정복을 기대하고 왔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 이미 살던 사람들이 걸맞은 환영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조 사람은 독특한 재능을 키웠다. 정치, 사업, 가족의 연결망, 개인적 영향력, 지역의 통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된 권력 체계로 만드는 능력이다.

때로 이 능력은 제도와 기업과 상업적 성공을 낳았다.

때로는 자기만의 논리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또 다른 권위의 구조를 낳았다.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들은 이 지역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땅은 천재들의 땅이기도 하다.

Raffaele Piria가 있었다. 칼라브리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 두뇌 가운데 하나로, 화학에 대한 그의 공헌은 현대 과학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인정은 다른 곳에서 통제되는 정당성의 장치를 거쳐서야 찾아왔다.

Corrado Alvaro가 있었다. 작가이자 지식인이자 이야기꾼으로, 그는 여러 세대를 자신의 말에 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이들이 있었다.

과학자.

예술가.

매니저.

기업가.

전문직 종사자.

칼라브리아를 떠난 뒤에야 성공한 사람들.

그것이 이 땅의 가장 기이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대개 칼라브리아 밖의 누군가가 먼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칼라브리아 안에서만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축하는 짧게 끝나기 마련이다.

현실은 끼어드는 버릇이 있다.

아주 빨리.

아하하하하.

어쩌면 이것이 칼라브리아의 가장 큰 역설일 것이다.

재능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데는 조심스러운 땅.

탁월함을 낳을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인증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은 땅.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수출하고, 그들의 명성을 고향으로 수입하는 땅.

그런데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 있다.

그들은 떠난다.

그들은 비판한다.

그들은 불평한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칼라브리아 이야기를 하며 보낸다.

그쯤 되면 칼라브리아는 장소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다.

영원한 마음의 상태.

Ferdinando Frega
Gillette Man ⚔️